

한국방위산업학회의 1992년 첫 간담회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후원하에 2월 21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金鎮炫 과기처장관을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金장관은 방위산업 기술개발과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연계 방안을 발표하여 관심을 고조시켰다



한국방위산업학회 과기처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성황...

産·學·研·官 각계 인사들의 衆智를 모아 안보정책 수립과 기술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한국방위산업학회의 1992년도 첫 간담회가 2월 21일 서울 캐피탈호텔(고려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金鎮炫 과기처장관을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황과 방위산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조 : 이번호 p.p 14-21, p.p 22-23)

1백여명을 상회하는 각계의 방산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金鎮炫 과기처장관이 밝힌 방위산업 기술개발과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연계 강화방안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방과학기술정책과 민수과학기술정책 연계

산업구조 고도화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의 위상이 재구축되어야 하겠으며,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 추진시 국방연구개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공동보조를 위해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국방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를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 국방 연구개발비 증대 및 투자분야의 고도화
총 국방비중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을 현재

의 2.7%에서 7%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등 선진국의 경우 12~13% 수준이며, 국방 연구개발투자의 절대액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360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기술능력 개발의 선도적 역할 수행

선진 각국은 국방기술개발이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중 연구개발비 지원을 國科研에 국한하기 보다는 산·학·연에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연구능력을 총동원하는 「국방연구공동체」의 형성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과학/산업기술정보와

국방기술정보의 유통체제 강화

과학기술처가 추진하는 14개 핵심 선도기술(G7 프로젝트)은 국방과학기술에도 기초가 되는 것이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확보를 위해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해외주재관과 정보본부, 기무사 등 軍조직을 통한 과학기술 정보수집 노력의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범부처적인 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泰)

국산 군용 훈련기 시대 개막

— 國科研과 대우중공업 등 국내 4개社 공동개발 —

國產 軍用 훈련기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國科研)와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항공, 금성정밀 등 국내 4개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산 군용 훈련/지원기(시제1호기, 아래 사진)가 최근 성공리에 첫 시험비행을 끝마쳤다.

군용 훈련/지원기의 개발은 1989년에 착수되어 국과연이 기본설계와 시험평가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4개 업체가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와 가공, 조립을 분담하는 협력체제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훈련/지원기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제작된 최초의 국산 군용 훈련기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의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시험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국산 민간항공기-「창공 91」에 이어, 국산 군용 훈련/지원기의 개발은 우리나라가 항공기 제작국 대열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차기 대형 항공기 개발을 위한 기본 기술능력과 체계기반을 구축하는 전기(轉機)로 평가된다.

이번 국산 군용 훈련/지원기 개발과 관련하여 최종조립과 날개제작을 수행한 대우중공업의 金榮敏 理事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항공산업의 육성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국산 군용 훈련/지원기의 성공적인 개발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쾌거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金이사는 항공사업의 육성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이에 대한 기술 및 자금 등 총체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지적하면서, 기술패권주의의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고부가가치산업이자 기술개발의 꽃인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경주할 때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泰)



방위산업

기술협력 다변화

佛·스페인과 방산·군수협력 협정 체결



權寧海 국방부차관 (◀ 사진)은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유럽 3개국을 순방하며, 프랑스 및 스페인과는 방산·군수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고, 영국과는 기술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우리나라와 1억8천5백만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마트라사의 미스트랄 단거리 대공미사일

防産 기술협력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權寧海 국방부차관은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유럽지역을 순방하며, 기간중 프랑스 및 스페인과의 방산·군수협력 협정서를 체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방산기술협력협정 등 필요한 분야별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와는 방산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상태로서, 특히 영국 및 이탈리아와는 군수분야를 통합한 방산·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프랑스 및 스페인과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학자 교환등 상호 공동연구 생산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공개되지 않는 기술자료의 제공과 무기체계 구매시 공급국 정부로 부터의 지원 및 보조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매년 교대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여 양국간 협력사항 토의와 함께 장비등의 계약체결시 필요한 정보 교환과 후속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에 방산·군수협력 협정을 체결한 스페인의 CN-235M 新세대 중형수송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천톤급 최신예 호위함 진수식이 2월 20일 崔世昌 국방부장관과 金鐵宇 해군참모총장, 崔秀逸 현대중공업 사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으며, 「부산함」으로 명명(命名)되었다. 이날 진수된 부산함은 현대 기술진에 의해 한국해역에서의 작전특성에 부합되도록 건조된 것으로, 최대 시속이 36노트에 이르며, 1백2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국산 호위함 - 「부산함」 進水

現代 중공업이 건조한 2천톤급 최신예 호위함 진수식이 2월 20일 崔世昌 국방부장관과 金鐵宇 해군참모총장, 崔秀逸 현대중공업 사장 등 많은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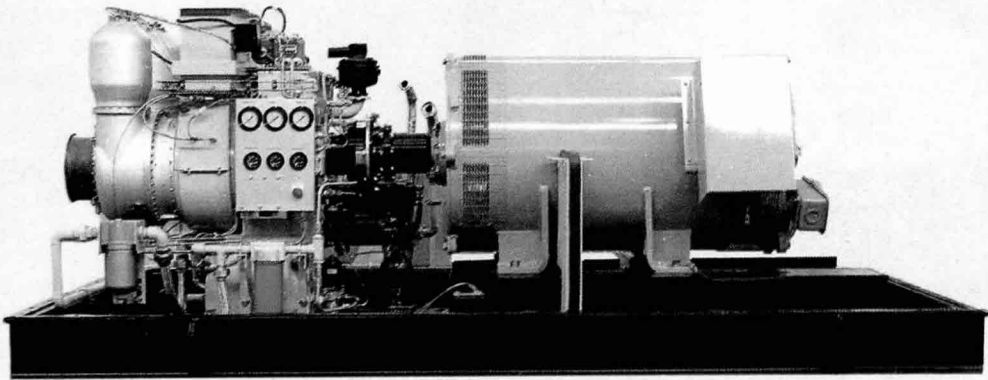
이날 진수된 호위함은 현대중공업이 89년 10월 수주하여 2년여 동안 건조해온 것으로, 최대 시속이 36노트인 최신형 구축함이며, 「부산함」으로 명명(命名)되었다.

이날 진수식에서 崔世昌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해양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주국방의 위용을 과시하고, 해군 전력증강에 또 하나의 쾌거인 호위함의 진수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부산함」이 우리 민족의 번영과 운명을 보장하는 해상방어의 최선봉 함(艦)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진수된 「부산함」은 순수한 우리 기술진에 의해 한국해역에서의 작전특성에 맞도록 건조된 것으로, 全長 102m, 폭 11.5m, 높이 6.6m로서 1백2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함」은 악천후속에서도 해상 작전능력이 뛰어나, 우리 해군의 전투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원중공업, 사옥 이전
 이전장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3(두원빌딩)
 ☎ (代) 510-7500



삼성항공, 「가스터빈 엔진」 국산화 착수

항공기 엔진 및 완제기의 자체제작을 지향하는 三星航空이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항공이 개발에 착수하는 산업용 가스

터빈엔진은 비교적 기초적 단계에 속하나, 이를 통해 항공기엔진 제작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다.

가스터빈 개발은 미국등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여 자체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고성능 고압압축기, 고압고온연소기, 고속터빈등의 설계에 필요한 기술은 KFP사업의 절충교역과정에서도 절대 이전금지항목으로 지정될 정도였다.

가스터빈기술은 최첨단 핵심기술의 복합체로서 기계분야의 꽃으로 불리며, 항공기용 가스터빈의 경우 구성부품 수가 2천~3천개에 이르고 있다.

삼성항공은 올해 개발기획조사와 시스템 개발·공통기술개발에 나설 계획이며, 96년까지 실용화할 예정으로 있다. 소요되는 개발비는 총 4백4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한항공등 국내 3사가 개발한 국산 경항공기인 「창공 '91」에 소요된 비용의 약 10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40%는 정부가 지원한다.

삼성항공이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종속 탈피는 물론 엔진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상당한 수입대체가 기대된다.

사무실 변경

*기원전자통신(주)

이 전 일 자	1992. 2. 15
이 전 장 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60 한통엔지니어링 14층
대 표 전 화	(02) 705-1717
FAX	(02) 706-4703

*대흥기계공업(주)

이 전 일 자	1992. 2. 21
이 전 장 소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126
대 표 전 화	(032) 683-1810
FAX	(032) 676-6979

*카스코 화재 손해사정(주)

이 전 일 자	1992. 2. 25
이 전 장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신한빌딩 507호)
대 표 전 화	(02) 784-7581(변동없음)
FAX	(02) 784-7580(변동없음)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6대 상근부회장에 鄭秀烈 (예)육군 소장 선임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제6대 상근부회장에 鄭秀烈 (예)육군 소장이 선임되었다. 신임 鄭秀烈 상근부회장은 사단장, 육본 관리참모부장, 올림픽 지원사령관, 1군 부사령관 등 軍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고 1990년 7월 예편하였다
鄭秀烈 상근부회장은 2월 21일 열린 防産학회 이사회에서 한국 방위산업학회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현대정공, 항공사업 제2단계 돌입

항공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Integration) 메이커를 지향하는 現代精工이 제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

1987년 6월 후발업체로서 항공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유일의 민간헬기 조립생산업체로서 성장해온 현대정공은, 올해부터 세분화된



신규 방산업체 지정

(주)동진전기와 동양나이론(주)이
신규 방산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 (株)東進電機

대표이사	이수련(李壽鍊)	
본사	주소	부산직할시 북구 학장동 286-13
	전화	(051) 92-6784/5
	FAX	(051) 323-1300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82 (대도빌딩 206호)
	전화	(02) 671-4407, 675-3986
	FAX	(02) 631-9021

* 東洋나이론(株)

대표이사	구창남(具昌男)	
본사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21-1
	전화	(02) 778-5069, 755-1212
	FAX	(02) 754-9983

부품의 조립과 시험을 통한 제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총5단계로 구성된 항공사업 마스터플랜이 계획대로 수행될 경우, 동체 전체를 생산하는 항공업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제2단계 항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李鍾源 상무이사(항공사업본부장)는 「주문생산」산업인 항공산업의 경우 소요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료비 10%에 90%가 연구개발, 시험, 품질관리, 서비스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李상무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면서, 조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공정상의 기술습득이 輕視되는 경향을 아쉬워했다.(泰)